

## 2014년 새해를 맞으며

새해를 맞으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 해는 뭐가 달라지나? 설렘이기도 합니다. 변화에 대한 답은 연구원 가족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연구원 경영은 모두가 함께 하는 일입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연구원이 한 단계 높은 궤도로 진입하기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기틀을 다지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지금 이 궤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에 꺼낸 변화에 대한 화두가 올해는 실천되고 체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전통을 지켜나가는 일 못지않게 수십년 켜든 때를 벗겨내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몇 가지 추진하는 일들은 있습니다. 먼저 예산문제입니다. 2014년 예산집행은 절약모드입니다. 이월예산이 발생해서는 매우 곤란합니다만 일부 청사이전과 관련된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서입니다. 예산 대비 효과를 고려하겠습니다. 위탁사업, 장비구입, 자료구입 등 다양한 활동의 효과와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복지문제를 위해서는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임용, 승진 등 인건비 인상 한도 적용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승진, 정규직 전환, 초청 연구원 채용, 우수과제 포상 등에 있어서도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구능률 향상, 복지향상, 자긍심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과 반대되는 일에도 신상필벌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것입니다.

올해는 연구원이 흥륭시대를 마감하고 나주로 이전하기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나주 신청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고, 이전에 따른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만드는 일도 중요할 것입니다. 지난 35년간의 흥륭시대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청사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갑시다.

권위주의,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능률성, 효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의와 행사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더 가지지 않으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걸음 멈춰서서, 한걸음 물러서서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월례조회를 포함해서 각종 회의와 행사, 외부활동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의자료, 보고자료 등은 최대한 축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와 평가제도에 너무 얽매어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평가제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구부서, 행정부서 어디서나 업무영역을 놓고 높은 칸막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판단기준은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있습니다. 일은 어느 부서에서 하든 누가 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연구보고서를 비롯하여 연구원이 수행하는 모든 일들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된다”는 품질관리 원칙이 지켜질 때 우리의 자존심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소통은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연구원 가족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와의 만남도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전화, 대면 어떤 것이든 환영합니다. 때론 카톡 같은 사적인 대화채널이 더 정이 갑니다. 워크숍, 연찬회, 체육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그룹간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易地思”의 자세로 서로에게 다가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원 건강은 연구원은 물론 가정의 대들보입니다. 소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음주와 흡연 문화도 바꿀 것은 바뀌어 나갑니다.

다 같이 작은 변화도 스스로 실천하는 2014년을 만들어갑시다. 투자의 신으로 불리는 Jim Rogers는 미래에 가장 흥미로운 투자처로 농업부분을 꼽았습니다. 농업과 우리의 앞날이 밝게 느껴집니다. 올 한 해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